

Chapter 2

05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와 돈의 미래

Laurent Collet 외 7인 | Deloitte Global

디지털 화폐의 부상

현재 디지털 화폐에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다. 중앙은행 계좌 보관형 법정화폐(fiat money)와 암호화 형태의 법정화폐이다. 후자의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 부르는 디지털 또는 암호화 자산(crypto-asset)이다. 디지털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거래내역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장치를 통해 소유권 정보가 저장된다. 암호자산에는 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등 세 가지 주요 하위 범주가 존재한다. 우리는 암호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해서 빠르게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법정화폐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은행계좌와 암호화폐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최근 수많은 종류의 암호화폐가 등장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독점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행된 암호화폐 종류는 6,726개에 달한다. 암호화 자산의 시가총액은 2003년 말 현재 미화 약 100억 달러에서 2020년 8월에는 3,7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런 열풍은 일부 암호화폐의 가격 거품과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했다.

이러한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화폐 모델이 등장했다. JP모건이 개발한 'JPM코인'도 그러한 사례들 중 하나다. 이 코인의 가격은 등락이 심하지 않은 다른 자산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발행 주체가 민간 회사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연구, 개발해 시범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적했듯이 CBDC는 잘 정의된 용어가 아니지만, 기존 지급준비금 및 결제계좌의 예금과 다른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발행 화폐로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이며,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자산과는 구분된다.

CBDC는 크게 계좌형(account-based)과 토큰형(token-based)으로 구분된다. 계좌형 CBDC는 발신자(or-

iginator)의 인증 후 중앙은행의 결제(settlement) 절차를 거쳐 인증된 수신자(beneficiary)에게 입금이 이뤄진다. 모든 사용자는 중앙은행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중앙은행은 디지털 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토큰형 CBDC는 인증 절차 없이 발신자가 무형의 지갑(CBDC wallet)을 통해 토큰을 보내면 중앙은행 승인을 통해 수신자의 지갑에 토큰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현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1, 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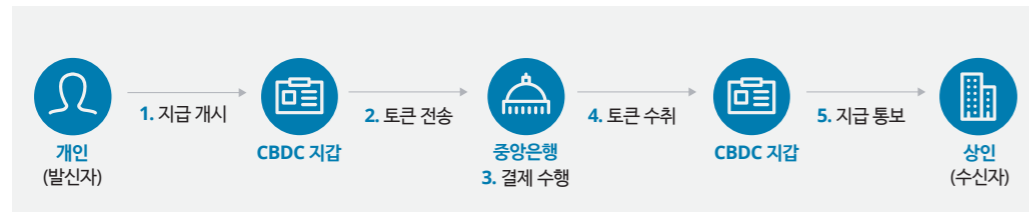
계좌형 CBDC는 금전거래가 사용자의 신원 확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발신자와 수신자의 청구 행위에 의해 CBDC가 계좌에서 계좌로 이동한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신원이 증명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면 토큰형 CBDC는 공개키와 개인키 한 쌍 및 디지털 서명을 가진 누구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 금전거래가 가능하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성 등 금융의 무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토큰형 CBDC는 현금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1
계좌형 CBDC



출처: 딜로이트

그림 2
토큰형 CB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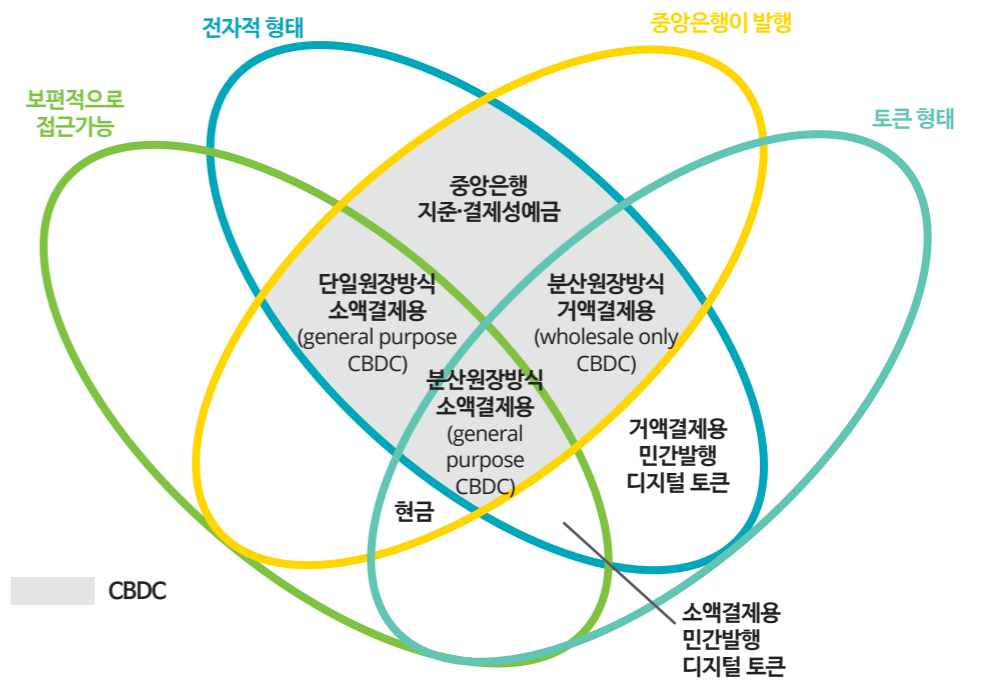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CBDC의 목적과 사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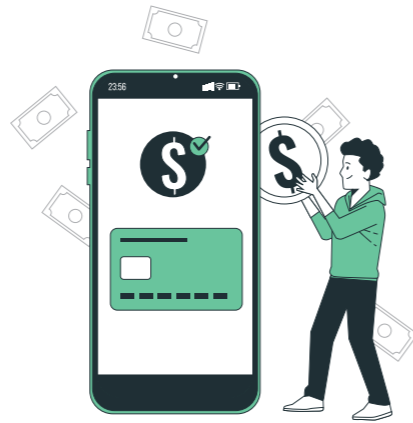
CBDC는 사용 범위 기준으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발행·유통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와 ▲개인을 포함한 민간 경제 주체에게 발행·유통하는 소액결제용(retail) CBDC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CBDC 모델이 미래 지급결제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에 대해 집중적을 살펴본다.

그림 3
CBDC의 정의



출처: BIS(2018.03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소액결제용 CBDC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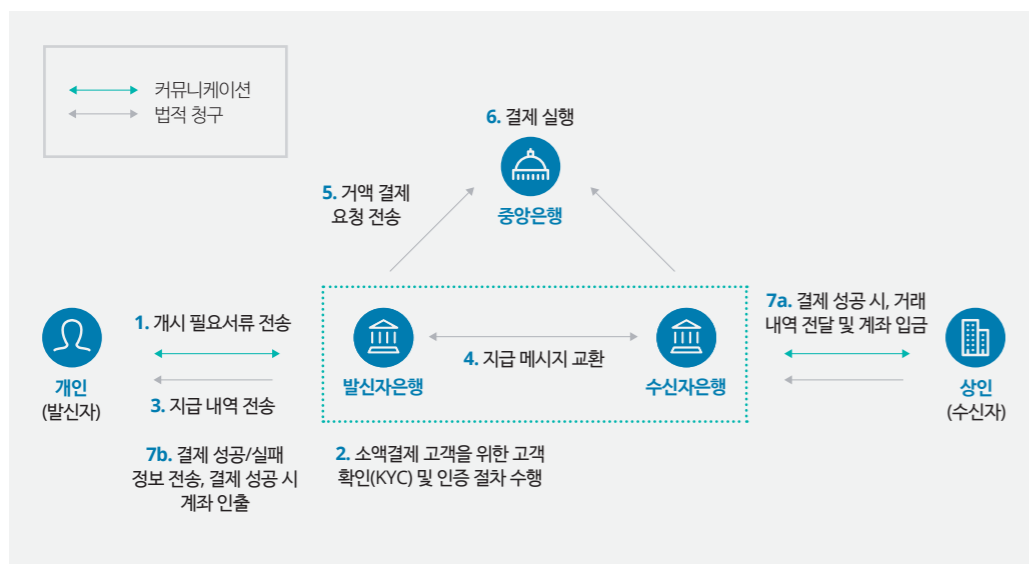


소액결제용 CBDC는 중앙은행 내 예금 계좌와 전자 발행 토큰 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들 두 유형의 핵심 차이는 거래 시 인증의 필요 여부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최종 거래 지원 책임에 따라 간접, 직접, 혼합 형태의 세 가지 거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개인과 기업에게 발행한 화폐의 거래를 책임지는 금융 중개(기관)에 의해 거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며, 나머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금융

중개가 중앙은행에게 직접 요청된다. 간접 거래인 시나리오1은 현재 은행 소액결제 절차와 여러 면에서 동일하며 금융기관의 중개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중개기관들이 중앙은행의 CBDC 예금으로 각각의 미결제 CBDC 발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고려사항은 중앙은행이 최종 CBDC 소유자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기관들이 요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그림4 참조).

그림 4
시나리오1: 간접 소액결제 CBDC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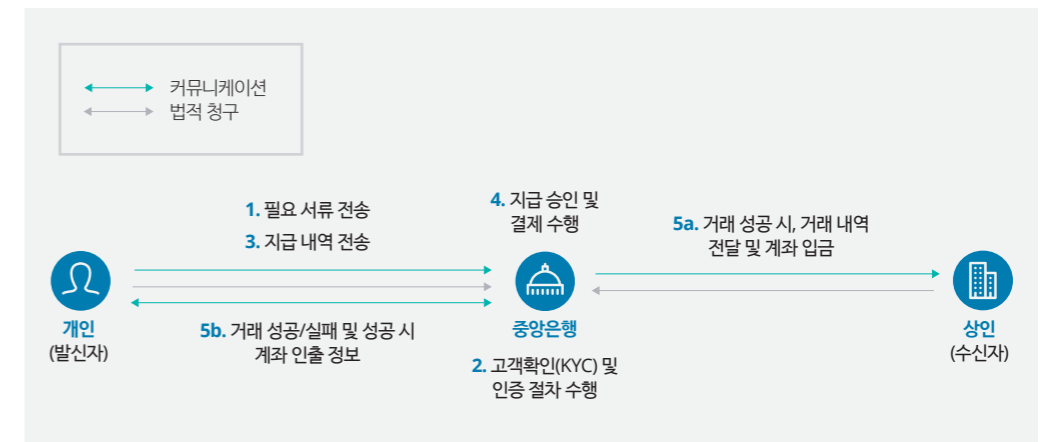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시나리오2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의 민간 계좌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모델이다. 이런 방식은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현행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다른 연구들이나 중앙은행들의 개념증명을 통해서 볼 때 선호할 만한 방식은 아니다(그림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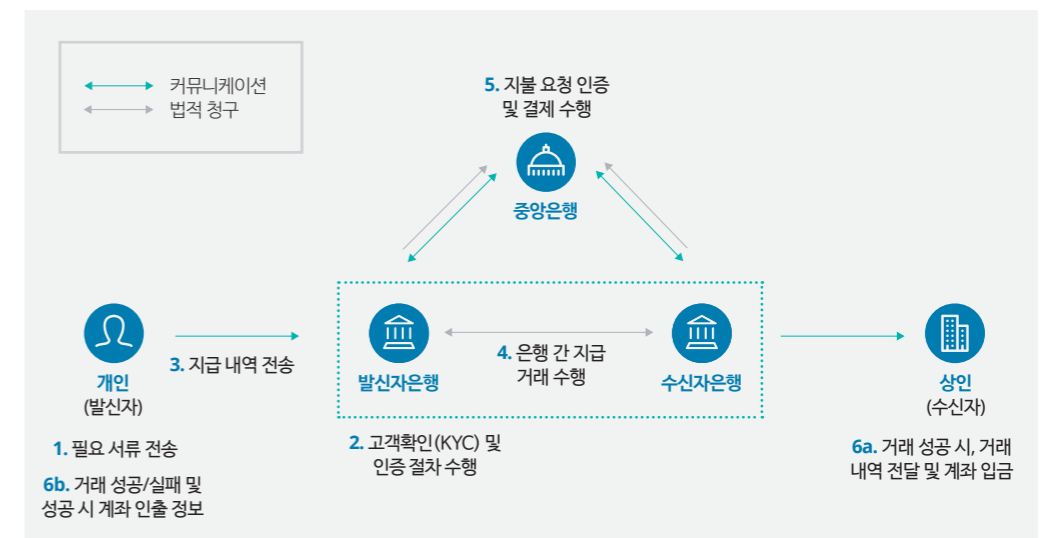
시나리오3은 앞서 직접 및 간접 시나리오가 혼재된 방식이다. 중개 금융기관은 발신, 수신인의 신원확인 및 감시 역할만 하고 CBDC 지급 결제는 중앙은행이 수행한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 함의는 발신자 은행, 수신자 은행 등 중개 금융기관이 CBDC 거래내역을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분리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인 및 기업은 증가한 이동성(portability)의 혜택을 얻는다(그림6 참조).

그림 5
시나리오2: 직접 소액결제 CBDC 거래



출처: 딜로이트

그림 6
시나리오3: 혼합 소액결제 CBDC 거래



출처: 딜로이트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들은 통화정책 수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중앙은행이 규제를 통해 상업은행의 화폐 창출을 제한하고 통제하지만, 소액결제용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 분배와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소액결제용 CBDC는 현금 없는 거래의 수용을 이끌고, 법화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면 지금의 현금 거래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청산 속도 역

시 CBDC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의 주된 장점이다. 중앙은행 간 직접 연결로 국내 및 국경 간 중개기관을 통한 필요가 없어지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줄어든 시간과 비용은 개인 및 기업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이런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중앙은행 지급결제 플랫폼과 CBDC는 최첨단 사이버보안 도구를 장착하고 고객확인, 잠재적인 자금세탁 및 사기 등을 감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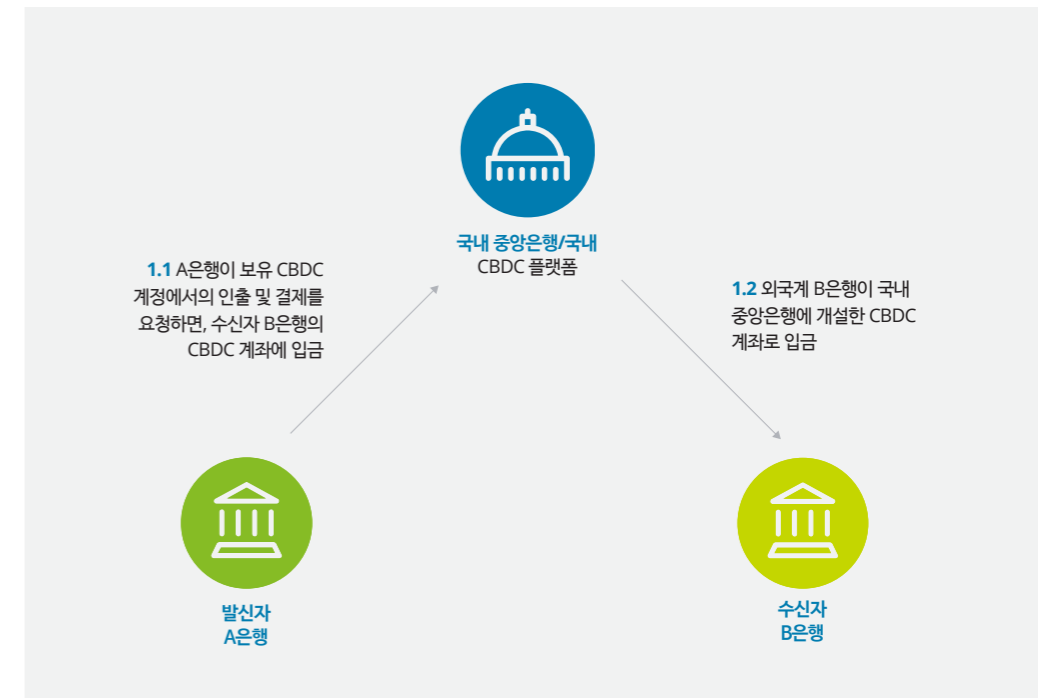


거액결제용 CBDC 모델

거액결제용 CBDC는 금융기관 간 지급 및 결제 거래에 활용된다. 거액결제용 CBDC 거래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중앙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결제 절차의 효율성과 위험 관리 개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현금 거래뿐 아니라, 증권을 포함한 자산의 이전과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금융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크로스보더 CBDC 결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시나리오1(국내 CBDC)은 특정 통화로 발행한 CBDC가 국내 관할권 내에서만 이체될 수 있는 경우다. CBDC의 해외 송금 시 중개은행을 이용한다. 시나리오 1의 첫 번째 옵션에서는 발신자 A은행이 국내 중앙은행에 CBDC 지급을 요청한다. 이후 해당 중앙은행은 직접 운영하는 CBDC 플랫폼을 통해 외국계 수신자 B은행에 송금한다(그림 7 참고).

그림 7
크로스보더 CBDC 결제 시나리오1: 로컬 거액결제 CBDC 옵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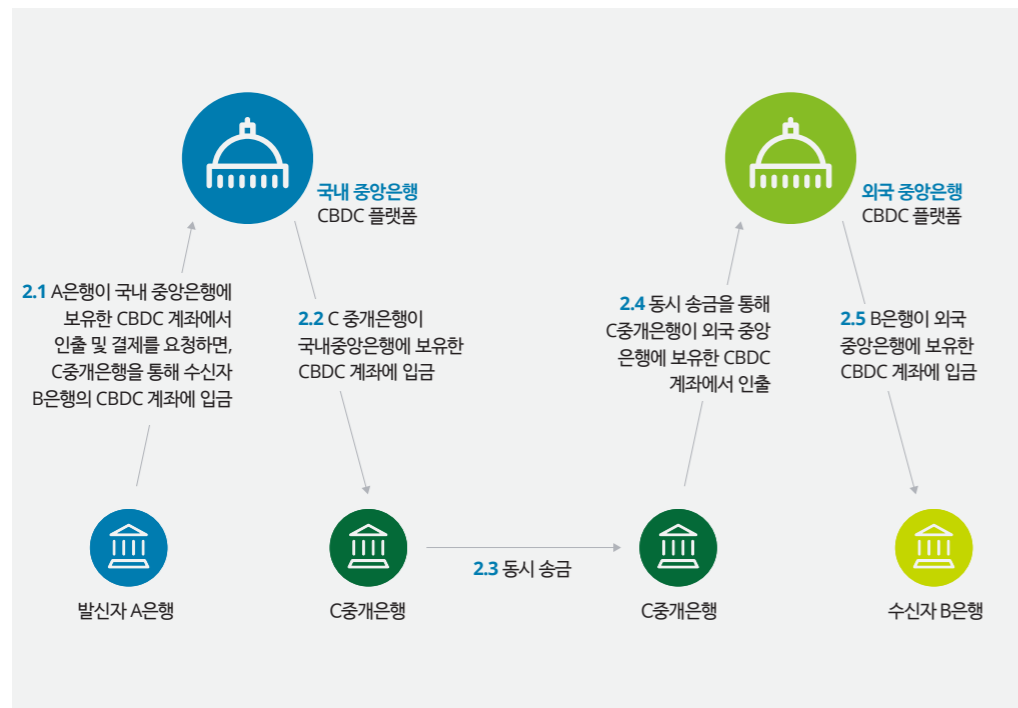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시나리오1의 두 번째 옵션은 수신자 은행이 국내 중앙은행 CBDC 계좌가 없는 경우로, 이 때는 중개은행을 이용한다. 이 경우 발신자 A은행의 요청에 따라 국내 중앙은행이 C중개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C중개은행은 해외 관할권의 중앙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CBDC 계좌로 동시

송금(synchronized transfer)을 하고, 이후 이 해외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에서 인출해 수신자 B은행의 해외 중앙은행 CBDC 계좌로 입금하면 최종 송금이 이루어진다(그림8 참고).

그림 8
크로스보더 CBDC 결제 시나리오1: 로컬 거액결제 CBDC 옵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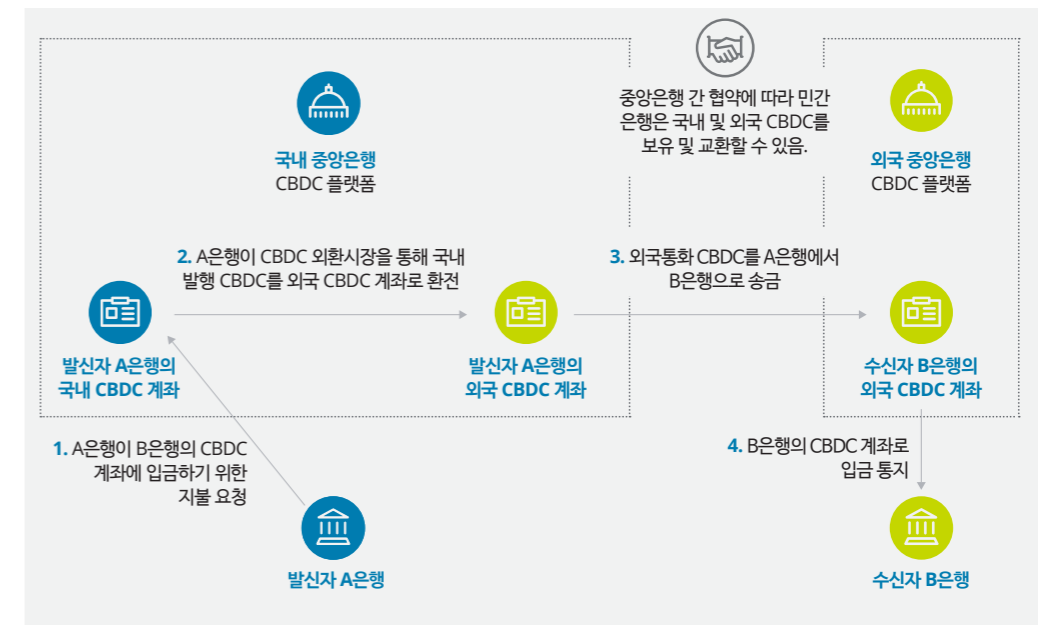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시나리오2는 국내 CBDC로 크로스보더 이체가 가능한 거액결제 CBDC다. 시나리오1과 같이 특정한 통화로 발행된 CBDC이지만, 다른 점은 이러한 국내 CBDC를 다른 사법권으로 국경을 넘는 송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은행의 외국계 CBDC 계좌 보유, 송금 및 환전 거래 승인 협정을 맺은 국가 간 CBDC 거래 모델을 설명한다. 이러한 방식은 발신자 은행이 먼저 국내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와 수신자 은행이 외국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먼저 옵션1에서 발신자 A은행은 자국의 중앙은행 CBDC 플랫폼에서 국내 통화로 발행된 CBDC를 CBDC 외환시장을 통해 외국계 CBDC 계좌로 환전한다. 이 해외 CBDC 계좌에서 외국계 중앙은행의 CBDC 플랫폼에 있는 수신자 B은행의 외국 CBDC 계좌로 송금하면, 수신자 B은행은 입금 통지를 받는다(그림9 참조).

그림 9
크로스보더 CBDC 결제 시나리오2: 로컬 이체가 가능 거액결제 CBDC 옵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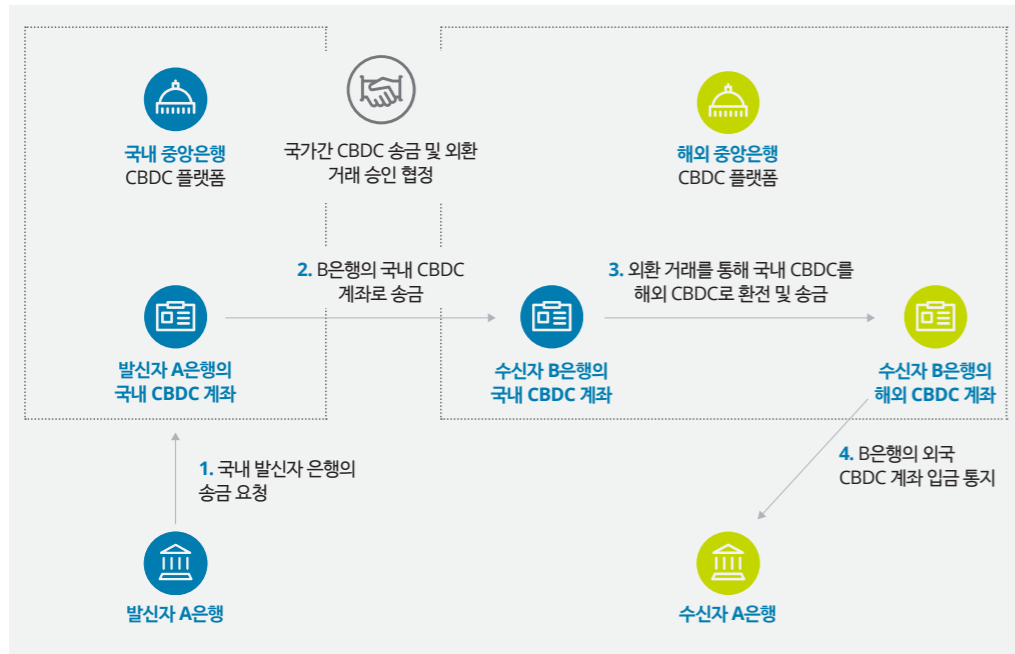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시나리오2의 옵션2에서는 발신자 A은행이 국내 CB-DC 계좌에서 곧바로 외국계 중앙은행 플랫폼의 수신자 B은행의 국내통화 CBDC 계좌로 송금하면, B은행이 국

내통화 CBDC를 외환시장을 통해 현지통화 CBDC로 환전하며, 최종적으로 외국 현지 CBDC 계좌로 입금 통지가 전달된다(그림10 참조).

그림 10
크로스보더 CBDC 결제 시나리오2: 로컬 이체가능 거액결제 CBDC 옵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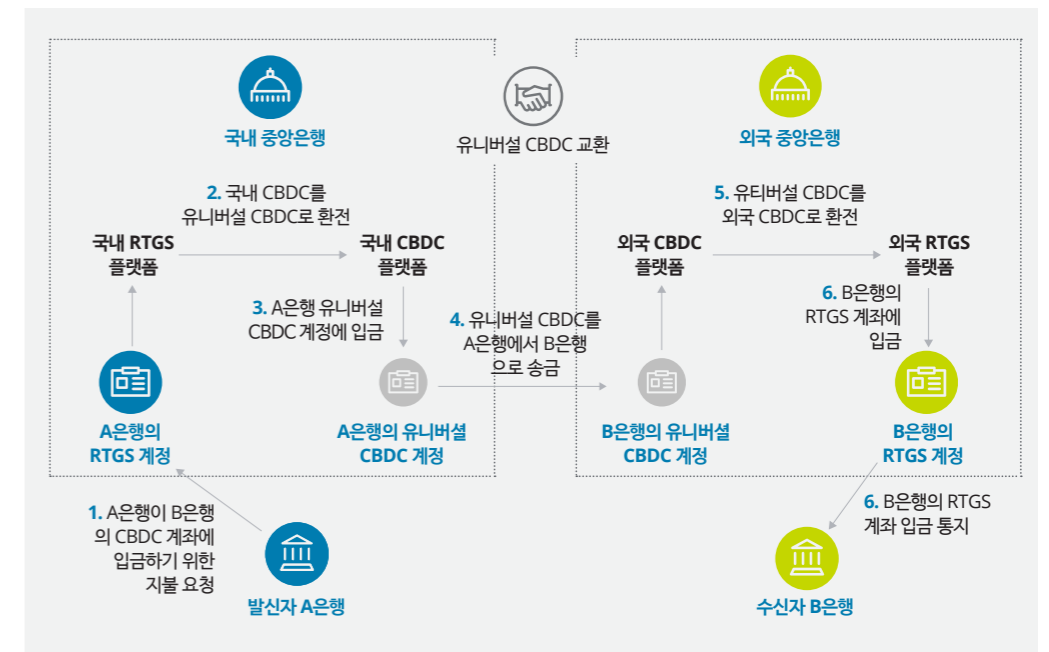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시나리오3은 국가 간 호환 가능한 유니버설(universal) 거액결제 CBDC 거래 모델을 설명한다. 이는 크로스보더 CBDC 거래를 위해 단일화된 CBDC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된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실시간총액결제) 시스템이 활용된다. RTGS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최종 자금결제가 익영업일에 이루어지는 DNS(Deferred Net Settlement, 이연차액결제)와 대비되는 방식이다.

발신자 A은행의 송금액은 자국의 RTGS 플랫폼과 C-BDC 플랫폼을 거치면서 자국의 중앙은행에 의해 유니버설 CBDC로 환전된다. 환전된 유니버설 CBDC는 발신자은행의 유니버설 CBDC 계정에서 수신자 B은행의 유니버설 CBDC 계정으로 송금된다. 그 후 역으로 같은 과정을 밟으며 외국 중앙은행의 CBDC 플랫폼을 거쳐 유니버설 CBDC가 외국 CBDC로 환전된 후 RTGS 계좌를 통해 거쳐 수신자 B은행 계좌로 이체된다(그림11 참조).

그림 11
크로스보더 CBDC 결제 시나리오3: 유니버설 CB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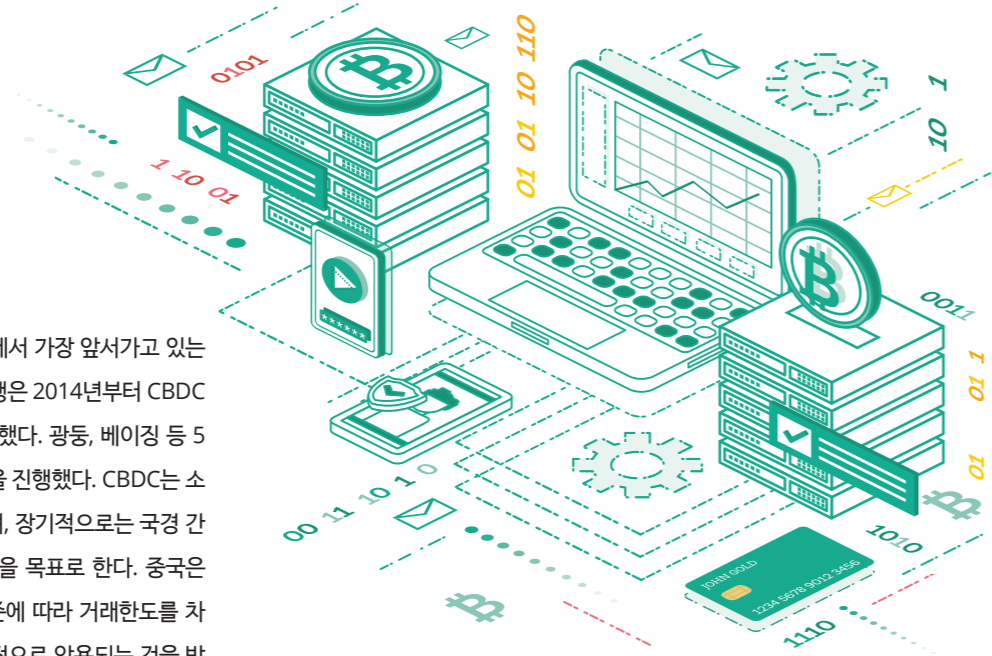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앞서 기술한 크로스보더 거액결제 CBDC 시나리오들은 모두 공통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실시간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CBDC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 업무 마감시간과 국가 간 시차에 따른 시간 제약이 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크로스보더 금융 거래가 기존처럼 2~3일 소요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자금의 이동이 은행 네트워크에 예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및 결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자금 이동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CBDC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금 이체 기록이 실시간으로 기록, 추적되고 관계 기관들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지역별 CBDC의 개발, 도입 현황



세계 주요국 중 CBDC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CBDC 개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광둥, 베이징 등 5개 지역에서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CBDC는 소액결제 위주로 사용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경 간 지급 및 결제에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CBDC 사용자의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 거래한도를 차등화하여, CBDC가 돈세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중국은 오는 2022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 행보에는 CBDC 도입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CBDC에 대한 연구 및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 CBDC는 통용되지 못한 채 힘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민간 암호화폐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소액결제용 CBDC에 대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개발 및 도입 가능성 연구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소액결제 및 거액결제 CBDC에 대해 모두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은행(BOJ), 영란은행(BOE), 스위스국립은행(SNB), 캐나다중앙은행(BO-

C), 국제결제은행(BIS) 등과의 협업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유럽 주요 개별국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CBDC 연구 및 도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거나 독일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진 유럽중앙은행이 CBDC를 법정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CBDC 연구 및 도입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2020년 4월 CBDC 시범 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2년 6월경 CBDC 시범 테스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국가/지역들에 대해 살펴보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CBDC 플랫폼 구축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흥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 위주로 연구가 진행중인데, 이는 지하경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는 물론이고 거액결제용 CBDC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CBDC 도입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의 프로젝트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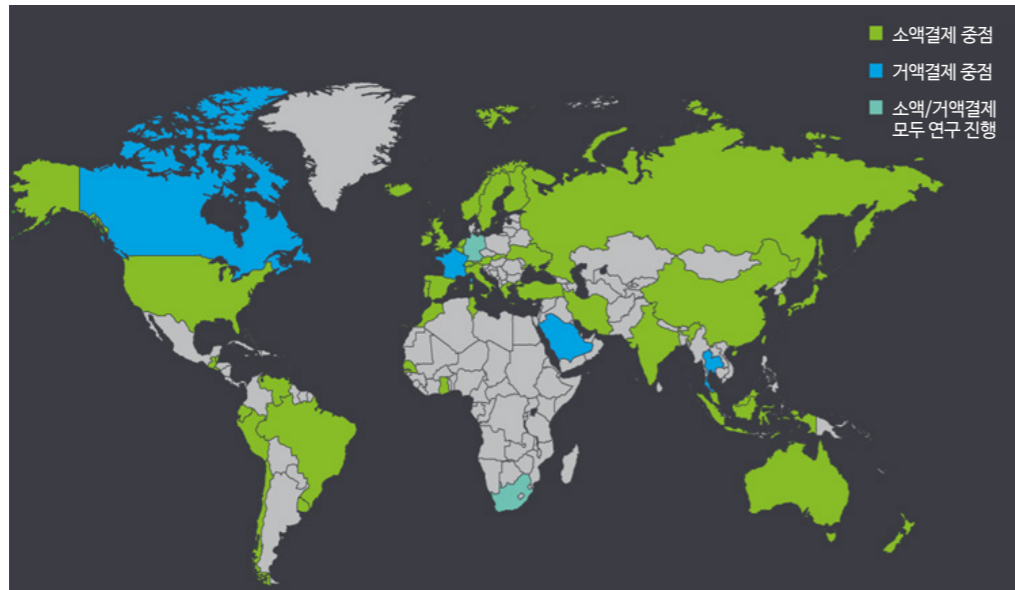
표 1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프로젝트 현황

주체	프로젝트 설명	CBDC 유형	진척 상황	기간
프랑스 중앙은행	8개의 글로벌 은행/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은행 간 CBDC 결제 프로젝트에 대해 모의 시험 테스트 중	거액결제	모의시험	2020~현재
액센츄어 및 디지털 달러 재단	미국의 디지털 달러 재단은 액센츄어와의 협업을 통해 9개 분야 모의 시험 진행중	거액/소액결제	9개 분야 모의시험	2020~현재
릭스뱅크 (스웨덴 중앙은행)	전자지갑(e-wallet), 분산원장기술(DLT) 및 상업은행과의 상호호환성 테스트 중	소액결제	모의시험	2020~현재
인민은행	지급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현금 대체, 개인간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디지털 화폐 전자 결제 프로젝트 수행 중	소액결제	모의시험	2014~현재
싱가포르 통화청 (중앙은행격)	화폐의 토큰화, 실시간 총액결제(RTGS),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크로스보더 이체 등에 대해 40개 금융기관 및 기업과 연구개발 중	거액결제	개발	2016~현재
남아공 중앙은행	토큰을 사용한 은행간 거액 결제 컨셉 구성을 위한 연구개발 진행중	거액결제	개발	2018~현재
분데스뱅크 (독일 중앙은행)	디지털 유료화 도입 및 개발에 대한 연구 수행	거액결제	연구	2019
6개국 및 EU 컨소시엄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 및 BIS가 컨소시엄으로 CBDC 도입의 경제적, 기능적, 기술적 이슈들에 대해 평가 및 분석 중	거액결제	연구	2016~현재

출처: 딜로이트

한편, CBDC를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으로 분류했을 때 각 국가/지역별로 중점을 두는 유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12와 같다.

그림 12
주요 국가별 CBDC 중점 도입 유형



출처: 딜로이트

CBDC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 및 미래 전망

CBDC 도입 및 활성화에 앞서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위험이다. 소액결제용 CBDC의 경우 대량의 데이터가 중앙화된 시스템에 저장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언제나 데이터 유출의 위험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관할 구역에 따라 중앙은행이 타 정부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CBDC가 특정 그룹의 소비 패턴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문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위험은 불법자금세탁(AML)과 테러자금조성(CTF) 관련 이슈이다. CBDC와 같은 새로운 금융 혁신이 등장하면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각종 제재의 이행 방식도 수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크로스보더 CBDC 결제가 AML과 CTF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세 번째 위험은 사이버보안 이슈이다. 최근 몇 년 간 사이버 공격 사례가 급증한 만큼, 보안이 CBDC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 소액결제용 CBDC 시스템의 경우, 자금의 이동 과정에서 많은 주체가 관여하기 때

문에, 사이버 공격 대상 접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프레임워크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상기한 리스크 외에 법/규제/정책 측면에서의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발행 조정이라는 수단으로 물가 안정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CBDC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 면에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거나 거래 자료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CBDC 발행을 사소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만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두 번째, 소액결제용 CBDC의 발행은 탈 금융중개화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적 복잡성의 층위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들에게 CBDC를 발행하면, 상업은행의 예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대출 가능액도 감소한다. 또한 중앙은행이 신용거래를 중앙 집권화할 수 있는데 이는 EU가 추구하는 자유경쟁, 개방형 시장 경제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BDC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수가 기존의 지급/결제 운영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운영 시스템이 조금만 바뀌어도 지급/결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CBDC 도입 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이 신속하고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한 것인데, 이와 상충될 수 있는 운영 상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 발행 추세와 각국 중앙은행의 적극적 행보를 보면, CBDC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다가올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규제대상' 디지털화폐 이니셔티브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CBDC는 약 2~3년 내에 우리 경제 시스템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CBDC의 도입이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추가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changer)가 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지급결제 모델을 대체하려고 의도하는 가시적 해법은 없다. 성공적인 CBDC 모델의 도입이 되려면 이를 통해 금융 거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또한 기존의 소비자 경험을 파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CBDC의 도입이 미국 달러화가 지배적인 국제 무역 질서에서 볼 때 중대한 지정학적 함의를 지닐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많은 국가들이 빠르고 효율적인 국가 간 결제를 위해 CBDC에 기반한 지급결제 매커니즘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중앙은행도 자신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해 연구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도전과 실질적인 요구는 국제 지급결제에 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CBDC는 미래 경제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대답은 그렇다이지만, '언제'라는 질문은 아직 남는다. 이에 대한 대답은 CBDC의 부작용과 파급 효과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 검토에 달려있다. 이전 방향에서 최근 유럽위원회가 금융디지털패키지(Financial Digital Package)를 발행하고 암호화자산 내 시장(MiCA) 규제에 대해 제안한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당국이 중앙은행과 더불어 암호화 및 디지털 금융 문제를 조화로운 접근 방식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여준다.